

1920-1930년대 일본어 자료에 나타난 조선궁술(朝鮮弓術)표상*

이 헌 정**

(e-mail : rgunpower@naver.com)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일본적 관점의 문제점과 그 배경 |
| 2. 일본궁도에 대한 인식 | 5. 마무리 |
| 3. 조선궁술에 대한 인식과 기생궁술 | |

키워드 : 国弓(korean traditional archery) 弓道(japanese traditional archery) 妓生(gisaeng) 弓術(archery) 朝鮮(Joseon)

1. 머리말

한국의 국궁(国弓)과 일본의 궁도(弓道)¹⁾는 모두 각 나라의 전통 활쏘기를 일컫는 말이다. 스포츠로서의 일반적인 활쏘기가 양궁(archery)으로 대표되는

* 본고는 이헌정의 석사학위논문인 「일제강점기 한반도 간행 궁(弓) 도서를 통한 조선·일본 궁술의 비교 연구 : 吉田英三郎의 (增訂)弓矢義解를 중심으로」를 첨삭 수정한 것이다.

또한 이 연구 성과는 2017년도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참여 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1) 흔히 한국의 전통궁술을 국궁이라 부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전통 활쏘기를 궁도(弓道)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면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전통궁술 단체 중 하나인 대한궁도협회는 협회 이름에서부터 궁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궁이라는 말은 서양의 양궁과 구별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본고가 주목하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식 활쏘기를 가리키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이에 비해 궁도라는 말은 실제로 1930년대 이후부터 조선식 활쏘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궁도라는 말에 대한 국궁계의 저항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국궁계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일본의 궁도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조선식 활쏘기를 가리키는 말로 「조선궁술」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현재, 두 나라의 고유의 활쏘기는 전통문화, 전통 스포츠로써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전통 활쏘기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동시에 행해졌었다. 일본 고유의 활쏘기인 일본궁도는 주로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들에 의해 행해졌으며, 조선 고유의 활쏘기인 조선궁술은 주로 조선인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궁술은 일본인들에 의해 관찰되고 기록되어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록들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어떻게 조선궁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본고의 이와 같은 연구는 다음에 제시하는 선행연구를 보충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김기훈은 「일제 강점기의 전통 궁술」²⁾에서 조선궁술이 일본에 의해 탄압만 받은 것이 아닌 일본과 협조하고 지원을 받기도 했다는 것을 논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식민주의가 공통적으로 전통 궁술을 장려한 현상을 본고에서는 그냥 ‘역설’이라고 지적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 역설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은 일제 강점기의 궁술 문화를 보다 더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의 하나이다」³⁾라고 하여 조선궁술이 일제에 협력하고 일본이 조선궁술을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를 보다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이 조선궁술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어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궁술에 대한 서술들을 분석하여 일본의 관점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2. 일본궁도에 대한 인식

조선궁술을 바라보는 일본의 관점은 자신들의 활쏘기인 궁도에 대한 관점이 배경에 있으며 타자의 활쏘기를 인식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궁술에 대한 관점을 논하기에 앞서 일본궁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 먼저 논하도록 하겠다.

일본궁도를 인식함에 있어 우선 중요시 되는 것은 유구한 역사성이다. 이러한 역사성을 강조하는 장치로서 동이(東夷)의 夷에 대한 분석이 사용되고 있

2) 김기훈(2011) 「일제 강점기의 전통 궁술」 『학예지』 1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pp.73-102

3) 김기훈(2011) 「일제 강점기의 전통 궁술」 『학예지』 1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p.90

다. 『(增訂)弓矢義解』의 저자인 요시다는 저서에서 「중국에서 동이 즉 대궁의 동국 으로서 예로부터 우리의 궁력을 두려워 한 것도 이유가 없지 않다⁴⁾」고 하고 있다. 동이(東夷)와 관련해서는 오키 겐조(大木賢三)의 『弓矢の歴史を語る』⁵⁾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또한 이(夷)라는 문자를 분해해 보면 大라는 글자와 弓이라는 글자를 합쳐놓은 것이다」⁶⁾라고 하고 있다. 즉 夷라는 글자는 大와弓을 합친 글자이며 夷는 大弓을 사용한 일본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궁도에 역사적 유구함과 위용을 부여하려는 입장에서 행해진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궁도의 역사성을 강조하려는 일본 궁도인 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타국의 활쏘기와 비교하며 일본궁도를 인식하는 글을 보도록 하겠다. 천리외국어학교(天理外國語學校)의 『開校十年誌』⁷⁾에서는 「생각하건데 세계 어느 나라나 활을 쏘다 할지라도 어느 곳도 전투, 수렵, 오락의 도구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⁸⁾」라 하여 일본의 궁도를 다른 나라의 궁술과 비교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궁도가 정신의 수양을 강조하며 전투, 수렵, 오락의 도구에 불과한 다른 나라의 궁술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다케우치 조(竹内尉)의 『弓道讀本：中等教科』⁹⁾에서 보다 상세히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활은 일본에만 있고 외국에는 없었는가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세계 곳곳의 미개인들은 대개 활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도, 독일에도 이탈리아에도 활은 있다. 하지만 단순히 도구만 발달한 것이 아닌, 일본의 사범과 같이 정신을 주체로 하여 모든 행동거지에 예의(進退周還體儀)를 가지고 종시(終始) 하는 것은 외국인 에게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의 활은 과녁에 적중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역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하고

-
- 4) 「支那に於ては、東夷即ち大弓の東國として、古來我が弓力を恐れたるも故なきにあらず」
吉田英三郎(1933) 『(增訂)弓矢義解』 朝鮮弓道有段者會 p.1
- 5) 大木賢三(1936) 『弓矢の歴史を語る』 春潮社.
- 6) 「また夷といふ文字を分解してみると、大と云ふ字と弓といふ字とを併せたものである」
大木賢三(1936) 『弓矢の歴史を語る』 春潮社 p.9
- 7) 天理外國語學校(1935) 『開校十年誌』 pp.302-303
- 8) 「惟フニ弓射ノ道ハ世界各國之レナキハナシト雖モ何レモ戰鬥狩獵娛樂ノ具トシテ用ヒラレタルニ過ギズ」 天理外國語學校(1935) 『開校十年誌』 p.302
- 9) 竹内尉(1937) 『弓道讀本：中等教科』 健文社.

있을지 모르나, 사법에 예의가 있고 행동거지(進退)에 법식이 있고 여기에 정신을 표현하는 것에 이르는 것은, 서양인 예게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활을 쏘는 것에 일본인의 생활이 있고 궁도의 특이한 정신이 녹아 있다.¹⁰⁾

しからば弓は日本にのみありて、外國にはないかといえ、決してさうではない。世界到る所の未開人は大抵弓を持つて居るし、アメリカにも獨逸にもイタリヤにも弓はある。けれども、日本の弓箭の如く精良なものは世界の何所にもない。單に道具が發達してゐるといふばかりではなく、日本の射法の如く精神を主體とし、進退周還體儀をもつて終始することは、外國人には一寸解し難ひであらう。外國の弓は的によく的中することのみを目的とし、力學的に研究するやうなことはしてゐるかも知れないが、射法に禮儀があり、進退の法があり、これに精神を表現するといふに至りては、西洋人には殆ど考へられないことであらう。即ち弓を射ることに日本人の生活があり、弓道の特異な精神がこめられてゐる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비교서술을 하고 있는데, ‘미개한’ 국가들도, 미국,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의 ‘문명국가’들도 궁술은 있으나 그것이 단순한 도구의 활용에만 머물 뿐이고, 일본과 같이 예의와 정신을 표현하는 활쏘기 양식은 없으며 이해를 하는 것도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즉 자신들의 고유한 활쏘기 양식인 궁도가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른 문명국들에 없는, 오로지 일본만이 누리고 있는 최고의 ‘문명’임을 주장하고 있다. 주지의 사실로서, 활은 도구에서 스포츠로 넘어오게 되는데, 일본의 궁도는 스포츠를 넘어 예(禮)와 정신의 영역이라는 보다 높은 영역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활쏘기에 있어서의 ‘예(禮)’라고 하는 가치관은 본래 중국에서 비롯되어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전파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도 천리외국어학교의 『開校十年誌』와 『弓道讀本：中等教科』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유일하게 중화의 대성공부자는 이것을 관덕수양의 도구로 하여 수신치국의 중요한 방법이라 하였으나 성도가 폐하여 지금은 없다. 우리나라의 궁시는 세계에 견줄 바 없는 대궁이며 머나먼 신대로부터 전해오며(중략)과학의 진보와

10) 竹内尉(1937) 『弓道讀本：中等教科』 健文社 pp.11-12.

더불어 난세에 의해 무사로서의 궁술은 필요치 않으며 무엇보다 치세에 의한 무도로서의 궁도는 나날이 융성해지려 한다. 이거 하나로 체구의 단련과 더불어 정신담력의 수양에 무엇보다 이상적이며 능히 신도를 이룰 수 있다.¹¹⁾

獨り中華ノ大聖孔夫子之ヲ觀德修養ノ具トシ修身治國ノ要道トシタルモ聖道廢レテ今や無シ。我國ノ弓矢ハ世界無比ノ大弓ニシテ遠ク神代ヨリ傳ハリ(中略)今ヤ科學ノ進歩ニ伴ヒ亂世ニ於ケル武射トシテノ弓術ハ其用ナシト雖モ治世ニ於ケル武道トシテノ弓道ハ日ヲ逐フテ隆盛ニ赴カントス之レーニ體軀ノ鍛鍊上將タ精神膽力ノ修養最モ理想的ニシテ能ク神道ニ叶ヘバナリ。

현재 일본에서 행해지는 사범은 중국으로부터 배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중국에서는 공자나 맹자의 시대에 이미 정신적으로 크게 발달 하여 공맹의 가르침 속에는 활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행되었을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일본에서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은 것이다.¹²⁾

現在、日本で行はれてゐる射法は、支那から教へられたところが頗る多い。支那では孔子や孟子の時代、すでに精神的に異常の發達をし、孔孟の教への中には、弓に關することが、かなり澤山出てくるのである。しかし、それが果してどれだけ實行されてゐたかは疑問であり、むしろ日本で花が咲き、實を結んだのであつた。

도구와 기술뿐만이 아닌 예와 정신의 수양은 공자와 맹자와 같은 중국 성현들을 언급하면서 더욱 강조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옛 성현들이 궁술을 수양의 도구로 보기는 하였으나 지금의 중국에서는 그러한 정신적 수양을 행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일본의 궁도가 정신의 수양이라는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일본궁도를 유구한 역사와 함께 정신수양의 단계에 이른, 무엇보다 발전된 활쏘기 문화로서 인식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 속에서 조선궁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알아보겠다.

11) 天理外國語學校(1935) 『開校十年誌』天理外國語學校 p.302

12) 竹內尉(1937) 『弓道讀本：中等教科』 健文社 p.12

3. 조선궁술에 대한 인식과 기생궁술

이중화의 『朝鮮의 弓術』¹³⁾에서는 사풍(射風)이라 하여 조선의 활쏘기와 활터에 대한 여러 규칙이나 예의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넛적의사풍(古來의 射風)’에서는 ‘임원의직권(任員의職權)’을 규정하고 ‘견책(譴責)’, ‘계급(階級)’, ‘샤딩에와서와초순솔때(等亭及初巡時)’, ‘샤계(射契)’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면서 활터에서 지켜야할 예절과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각 정(亭)마다 서로 다른 사풍을 균일하게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⁴⁾ 이를 보면 조선의 활쏘기 또한 단순한 도구의 사용이 아닌 예(禮)가 동반된 활쏘기 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활쏘기 자체(화살을 시위에 걸어서 내기 까지)에 포함된 의미나 절차보다는 활을 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모인 조직과 장소에 대한 예를 강조하고 있다. 즉 활을 쏘는 과정을 볼 때 단순히 화살을 시위에 걸고 시위를 당겨서 놓는 행위 이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행위나 의식이 보이기 힘들며, 이러한 점은 일본 궁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禮)가 없이 단순히 행위만을 하는 「외국의 궁술」의 일부로 보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은 환인곡물협회(丸仁穀物協會)의 『조선의 풍속(朝鮮의 風俗)』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조선의 연중행사(朝鮮의 年中行事)』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봄이 돌아오면 오랫동안 집에서 칩거하던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가지고 산과 들로 놀러나간다. 일부 사람들은 궁술을 한다. 활은 크게 흰 강선을 띄고 있다. 사법도 일직선이 아닌 하늘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쏜다.¹⁵⁾

「春陽來復すれば永く屋内に蟄居した人々は、酒食を携へ山野に遊樂する。一部のもののは弓術を試みる。弓は強度の弧線をなして居る。射法も一直線ではなく、大空に向つて拋物線を書いて射る」

13) 李重華(1929) 『朝鮮의 弓術』 朝鮮弓術研究會

14) 李重華(1929) 『朝鮮의 弓術』 朝鮮弓術研究會 pp.110-127 의 내용을 참고.

15) 丸仁穀物協會(1933) 『朝鮮의 風俗』 門田寫眞製版所 pp.17-18 (丸仁穀物協會(1933) 『朝鮮의 風俗』의 페이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에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열람을 할 때의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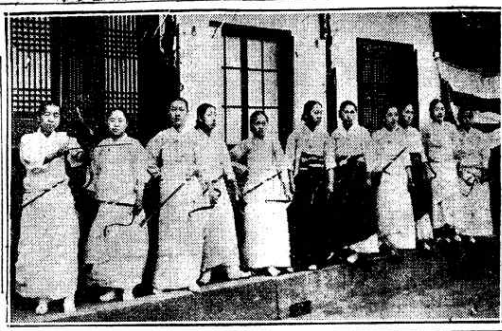
궁술회를 개최할 때는 기생을 불러 술을 마시고 용기를 고양시킨다. 궁술을 실시할 때는 예쁜 복장을 한 많은 기생들이 무사의 배후에 정렬하고, 노래하며 무사의 기를 북돋아 주는데,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면 기생들은 지화자 지화자라 노래 부르며 춤을 춘다. 이 모임에는 부근의 남녀노소의 관객이 운집하기 때문에, 녹음 아래 인산인해를 이룬다.¹⁶⁾

「弓術會を催す際には、妓生を侍らせて酒を飲み、大いに勇氣を揚げるのである。弓術を試みる時には、鮮かな服裝をした妓生が大勢武士の背後に整列し、唄ひながら、武士の氣を勵ますのであるが、矢が的クワンヨク(これを朝鮮語で관역 kwanyukといふ)に適中すれば妓生達は持花者ジフワザ持花者ジフワザ(chi wha cha)と唄ひながら踊るのである。この會には、附近の男女老少の觀客が雲集するので、綠陰の下に人の山、人の海を現出するのである」

두 기록에서 모두, 조선의 활쏘기에는 술이 등장하며 특히 『조선의 연중행사』에서는 기생이 술을 따르기도 하고 무사(武士)들이 활을 쏠 때 응원을 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조선궁술의 특징으로 활을 쏘는 중에 술을 마신다는 것과 기생이 함께 한다는 점을 꼽은 것인데, 이는 조선궁술이 가지고 있었던 오락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예쁜 복장을 한 많은 기생」이나 「지화자 지화자라 노래 부르며 춤을 춘다.」와 같은 서술을 보면 조선궁술 자체보다는 조선 궁술에 등장하는 기생들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생이 등장하는 조선의 활쏘기는 1923년의 『京城日報』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 1923년 6월 16일 ‘궁술대회십육일거행(弓術大會十六日舉行)’이라는 기사에서는 「(전략)기생경사에는 은잔 은수저 한 쌍을 상여하고 여흥으로 기생의 춤이 있을 것이다(妓生競射には銀洋盃、銀羊匙一對を賞與する、餘興としては妓生踊がある筈で」라는 부분이 나오며, 기생이 활을 쏘는 대회에 참가하는 동시에 여흥을 돋우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사와 관련하여 3면에는 ‘궁술대회에 참가하는 기생들(弓術大會に参加する妓生連)’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며, 동년 10월 12일 『京城日報』에는 ‘기생의 궁술대회(妓生の弓術大會)’라는 제목과 함께 기생이 활을 쏘는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아래는 『京城日報』에 나온 기생들의 활 쏘는 사진이다.

16) 朝鮮總督府(1937) 『朝鮮の連中行事』 朝鮮總督府 pp.104-105



[그림1] 『京城日報』 1923년 6월 16일



[그림2] 『京城日報』 1923년 10월 12일

[그림1]과 [그림2]를 보게 되면 기생들이 활을 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식의 궁술대회를 보도하는 기사에서 특히 주목한 곳이 바로 기생들이 활을 쏘는 장면이었던 것이다.

[그림2]의 「기생의 궁술대회(妓生の弓術大會)」 사진은 『京城日報』 뿐 아니라 조선어 신문인 『每日申報』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해당 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3 『每日新報』 1923년10월12일

『京城日報』와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연약한 팔뚝으로렬궁을당기다」 라고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연약한 여인과 강렬한 활의 조화를 떠올리게끔 한다. 이 또한 조선궁술을 보는데 있어 기생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조선궁술의 기생에 대한 부분은 1930년 1월24일 『京城日報』의 「朝鮮漫筆」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기사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궁술도 무술로서 연마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나버려 최근에는 순전히 오락이 되었고 또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각지에 호석정이라든지 노각정 등의 정자를 두고 유산유한유식의 계급이 활을 연습하고 있는데 그 격식등도 꽤나 어려워 『정심공부』가 없이는 과녁에 맞힐 수가 없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생을 대려와 취한 기분으로는 내지의 대궁보다 더한 강궁이기 때문에 좀처럼 맞지 않는다.

이렇게 풍류 적으로 활을 쏘는 계급은 예전에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한량이라 불렀다.¹⁷⁾

朝鮮の弓術も武術として練磨する時代はト一の昔に過ぎて仕舞つて最近では純然たる娛樂となり、又暇潰しの腹すがしと化してゐる事は言ふまでもない。各地に虎石亭とか老鶴亭等を亭子を結んで、有産有閑有識の階級が弓を練つてゐるがその格式等も仲々六ヶしく『正心工夫』がなくしては全的にあたるものでない。況んやキーサンをつれてボロ酔氣分では内地の大弓等よりも余程の強弓であるから、メツタニ当たらぬ

조선궁술에 대해 「순전히 오락이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시간을 때우기」 위한 놀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심공부」를 해야 과녁을 맞힐 수 있다고 하여 조선궁술의 진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언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기생을 대려와 취한 기분으로는 좀처럼 맞지 않는다」를 보았을 때 기생과 어울리며 활쏘기를 즐긴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긴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풍류 적으로 활을 쏘는 계급은 예전에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한량이라 불렀다」고 하여 조선궁술의 전체상을 기생과 함께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들이 주목하는 곳을 보았을 때 특히 일본에서 주목한 조선의 활쏘기는 기생이 가미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활쏘기이며, 이는 정신의 수양과 예를 중시하는 일본의 궁도와는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는 문화적 우열의 차이를 생산 하여 일본 궁도의 우월성을 역설해주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생의 존재가 반드시 유흥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 장에서는

17) 『京城日報』 「朝鮮漫筆」 1930년 1월24일

조선어 자료인 『朝鮮의 弓術』과 『京城日報』의 사진을 보면서 조선궁술을 바라보는 일본의 관점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도록 하겠다.

4. 일본적 관점의 문제점과 그 배경

『朝鮮의 弓術』에는 편사(便射)라 하여 「사덩과샤덩이평일에단련한무예를 서로비교하여승부를결하여만인의갈채(喝采)를받음으로써의기를도드는교무회(較務會)를설행(設行)」¹⁸⁾하는 활쏘기 행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풍악과 기생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명하는 풍악과 기생은 그 자체가 편사의 범식과 절차의 한 부분이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용문을 보겠다.

풍악과기생의획창이잇는편사에는기생의복장은필히큰머리에남치마를입고이삼스인식억개를간지런히하고서서목소래를갓치하여병창(并唱)하되남즈한량의획창소래가끗치기를기대려서군문의대취타명령조로관중이라는데를방울목을너서획창하되성명을불으지안이하하고관직을짜라서가령국장(局長)을지내고성이리가면리국장령감이라고하고만일당하관이면나아리라불으고관직이업는샤원이면성을짜라리가면리셔방님김가면김셔방님이라불으나니(후략)¹⁹⁾

큰머리를 해야 한다는 기생의 머리모양과 남색치마라는 복식에 대한 규정, 그리고 사원의 관직에 따라 기생들이 불러야 하는 획창의 종류에 대한 규정까지 세밀하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편사에 있어서 기생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유흥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기생들이 어떻게 조선궁술을 행하고 있는지는 위에서 제시한 [그림1]과

18) 李重華(1929) 『朝鮮의 弓術』 朝鮮弓術研究會 p.128 (본고의 필자는 『朝鮮의 弓術』을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통합뷰어로 열람하였으나 해당 서적의 페이지 표기는 책 중앙에 한자와 페이지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 두 가지로 되어 있었다. 한자표기의 경우가 보다 원래의 표기방식이라 생각되나 손상되어 명확하게 보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기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된 페이지를 본고에 표기하였다.)

19) 李重華(1929) 『朝鮮의 弓術』 朝鮮弓術研究會 pp.152-153

[그림2]의 활을 쏘는 기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다라도 알 수 있다. 먼저 허리에는 궁대를 메고 화살을 궁대에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정(射亭)에서 활을 배워서 쏘는 기사들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조선의 전통적인 궁술양식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1]의 조선궁술 특유의 비정비팔(非丁非八)의 발 자세로 화살을 시위에 거는 모습이나 [그림2]에서 자세의 흐트러짐이 없이 줌손을 뺀고 각지 손으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모습 등은 정식으로 궁술을 배워서 활을 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기생들의 궁술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며 조선궁술의 저변확대의 일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전술한바 대로 일본의 관점에서 궁술과 기생은 오로지 유흥으로만 보여질 뿐이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첫째로 세밀하게 정형화된 일본궁도의 외관(外觀)에 있다. 요시다(吉田)의 『(增訂)弓矢義解』에 의하면 1930년대에 이미 활을 쏘는 과정이 구분동작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구분은 1)발디딤(足踏) 2)몸체 가다듬기(胴造) 3)살 먹이기(弓構) 4)활 들어올리기(打起) 5)밀고 당기기(引取) 6)완전히 당기기(抱) 7)발시(離)의 7단계로 나뉜다.²⁰⁾ 화살 하나를 쏘기까지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본궁도와 달리 조선궁술은 특별한 구분동작이 아닌 연속된 동작을 취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정돈되지 못한, 예법이 부족한 활쏘기로 보이기 쉽다. 『(增訂)弓矢義解』에 서술된 「射者の心得」의 한 부분을 보면 활을 쏘는 과정에서 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활쏘기는 진퇴를 반복함에 있어 예를 중시해야한다. 맞히지 못하면 이를 자신의 탓으로 한다는 말이 있다. 활쏘기는 예와 함께 하고 자성과 함께 하며, 이러한 활쏘기는 좋고 나쁨에 있어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른다. (후략)²¹⁾

射は進退周還必ず禮に中る、射て中らざれば、反て之を其の身に求むと云ふ、射は禮を伴ひ、自省を伴ふ、是れ射が邪正にありて、無念無想の境に到るにあ
り

동작 하나에 예를 다해야 하며 자성(自省)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조선궁술의

20) 이는 현재의 일본궁도에서 하는 사범팔절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용어차이가 있으며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인 잔심(殘身)이 빠져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松尾牧則(2016) 『はじめての弓道』 誠文堂新光社 pp.2-3을 참고

21) 吉田英三郎(1933) 『(增訂)弓矢義解』 朝鮮弓道有段者會 pp.317-318

활을 쏘는 과정 자체는 단조롭기에 일본인의 관점에서는 예(禮)가 보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본 활쏘기 놀이 중 하나인 양궁(楊弓)에 대한 기억이다.



[그림3]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職人盡繪詞』 22)

[그림3] 중앙 상단을 보게 되면 남녀가 어울려 활을 쏘며 즐기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특히 활을 쏘다말고 고개를 뒤로 돌려 주의를 둘러보는 여성의 모습에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엿보인다. 마쓰오(松尾)의 『弓道その歴史と技法』²³⁾에 의하면 양궁은 중세일본에서도 행해진 일본에서 오래된 활쏘기 놀이다. 에도막부 말기와 메이지 초기까지 상황을 누렸는데 활쏘기를 즐기는 것과 더불어 매춘과 도박까지도 병행되었으며 쇼와(昭和)시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²⁴⁾ 그러나 『丹下左膳餘話百萬兩の壺』²⁵⁾, 『三十三間堂通し矢物語』²⁶⁾와 같은 일제강점기 일본영화에 양궁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일본인들의 기억에 양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2)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dl.ndl.go.jp/>(검색일2017.11.29.)

23) 松尾牧則(2013) 『弓道その歴史と技法』 公益財団法人日本武道館 pp.233-234

24) 松尾牧則(2013) 『弓道その歴史と技法』 公益財団法人日本武道館 pp.96-97를 참고

25) 山中貞雄(1935.6) 『丹下左膳餘話百萬兩の壺』 日活

26) 成瀬巳喜男(1945.6) 『三十三間堂通し矢物語』 映畫公社 양궁이 등장하는 장면은 그림4.5와 같다. 활을 쏘는 남성 옆에 여성이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등 궁도와는 다르게 자유롭고 유희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림4] 영화 『丹下左膳餘話百萬兩の壺』



[그림5] 영화 『三十三間堂通し矢物語』

그리고 이와 같이 궁도와는 완전히 구분되며 유흥으로서만 존재했던 양궁에 대한 기억은 조선궁술이 기생으로 인해 유흥으로서 점철되게끔 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마무리

일제강점기의 일본궁도, 조선궁술에 대한 일본어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일본 궁도는 스포츠, 오락의 단계를 뛰어넘어 정신을 가다듬는 ‘무도(武道)’로 인식 되었으며 타자의 활쏘기는 아직 정신수양에 이르지 못한 유흥과 스포츠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조선궁술 또한 이러한 타자의 활쏘기였으며 유흥적인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같은 공간(조선)에서의 활쏘기라 할지라도 무도(일본궁도)와 유흥(조선궁술)으로 구분지은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조선궁술에서 등장하는 기생에 의해 더욱더 명확하게 되었다. 일본궁도의 관점에서, 조선의 활을 쏘는 기생의 존재는 조선궁술이 일본궁도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 유흥으로서의 활쏘기로 보이게끔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어 자료에서 단순한 유흥으로 조선궁술을 서술한 것에는 일본궁도를 활쏘기의 정수로서 인식하여 오로지 일본궁도의 관점에서만 조선궁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궁술이 가지고 있는 예와 격식은 보이지 않았으며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기생과 음주가 가미된 유흥으로서의 활쏘기로서 조선궁

술을 인식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정형화된 일본궁도의 외관과 상대적으로 덜 정형화된 조선궁술, 그리고 일본의 활쏘기 놀이였던 양궁(楊弓)에 대한 기억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훈(2011) 「일제 강점기의 전통 궁술」 『학예지』 1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pp.73-102
李重華(1929) 『朝鮮의 弓術』 朝鮮弓術研究會.
大木賢三(1936) 『弓矢の歴史を語る』 春潮社.
竹内尉(1937) 『弓道讀本：中等教科』 健文社.
朝鮮總督府(1937) 『朝鮮の連中行事』 朝鮮總督府.
天理外國語學校(1935) 『開校十年誌』 天理外國語學校.
丸仁穀物協會(1933) 『朝鮮の風俗』 門田寫眞製版所.
松尾牧則(2013) 『弓道その歴史と技法』 公益財団法人日本武道館 pp.96-97
松尾牧則(2016) 『はじめての弓道』 誠文堂新光社.
吉田英三郎(1933) 『(増訂)弓矢義解』 朝鮮弓道有段者會.
『京城日報』 1923년 6월 16일, 1923년 10월 12일, 1930년 1월 24일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index.jsp>
北尾政美 外(연도미상) 『職人尺絵詞』 (출판사불명)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dl.ndl.go.jp/\(검색일2017.11.29.\)](http://dl.ndl.go.jp/(검색일2017.11.29))
山中貞雄(1935.6) 『丹下左膳餘話百萬兩の壺』 日活 (영화)
成瀬巳喜男(1945.6) 『三十三間堂通し矢物語』 映畫公社 (영화)

논문 투고 일자 : 2017. 11. 30.
논문 심사 일자 : 2018.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2. 05.

<要旨>

1920-1930年代の日本語資料から見られた朝鮮弓術の表象

李憲正

本稿は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弓術の資料に注目し、その中でも特に日本の観点から見た朝鮮弓術に関する資料に焦点を当てた。そしてこのような資料を通じ日本は朝鮮弓術を遊戯として見ており、その原因は弓術を行うと共に妓生がよく登場するのを目撃したことにある。したがって精神の修養を重視する武道としての日本弓道と遊戯としての朝鮮弓術という見方が成立され、両方を優劣関係として見ていた。しかし妓生の存在がすなわち遊戯に繋がるとは断言できない。朝鮮弓術での妓生は弓術様式の一部である場合もあり、正式に弓術を學んで弓を射る妓生が多数あったからである。しかし日本弓道から見られる外見と楊弓に對する記憶は妓生の存在がすなわち遊戯に繋がるようにさせた。

A study of korean archery's image in Japanese colonial period 1920-1930

Lee Heon-Jung

This article focused on the Korean archery data in colonial Korea, and focused on the data on Korean archery, especially from Japanese point of view. Through such materials, Japan sees Korean archery as a game, the reason being that existence of Gisaeng as well as performing archery. Therefore, the view that Japanese archery as a martial art focusing on mind training and Korean archery as a game was established, and both were seen as superiority relationship. However, I can not affirm that the existence of Gisaeng leads to play. Gisaeng in Korean archery may be part of the archery style, and there were a lot of Gisaeng who officially learned archery and shoot the bow. However, the appearance seen from Kyudo and the memories of YO-KYU made the presence of Gisaeng leading to play.